

예수님의 비유(210901)

■ 제 8 강 은혜로운 아버지의 비유(눅 15:11-32)

1. 전후 문맥: 되찾은 기쁨

- 1.1. 잃은 영혼을 찾은 기쁨
 - 1.1.1. 잃은 ()을 찾은 목자의 비유(눅 15:1-7)
 - 1.1.2. 잃은 ()을 찾은 여인의 비유(눅 15:8-10)
- 1.2.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(눅 15:11-32)
- 1.3.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(16:1-8)
 - 1.3.1. 미래를 준비하는 삶
 - 1.3.2. ()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물을 사용함

2. 비유의 주인공: 탕자? vs. 아버지?

- 2.1.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: 아버지와 두 아들(눅 15:11)
- 2.2. 비유 전반부의 등장인물: 작은 아들과 아버지(15:11-24)
- 2.3. 비유 후반부의 등장인물: 큰 아들과 아버지(15:25-32)
- 2.4. 이 비유 전체에 일관성을 제시하는 인물은 아버지
 - 2.4.1. 일반적으로는 ()의 비유라고 알려짐
 - 2.4.2. 그러나 핵심은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 → 은혜로운 ()의 비유

3. 집을 떠나는 작은 아들(눅 15:12)

- 3.1. 탕자의 나이: 결혼 전 → 대략 17 세
- 3.2. 상속의 몫: 아버지 재산의 () (신 21:17)
- 3.3. 탕자의 가출 동기
 - 3.3.1. 서구인들의 관점: 돈을 벌기 위해?
 - 3.3.2. 중동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반응(K. E. Bailey):
"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미워했으며, 아버지가 죽기를 원한 것!"
 - 3.3.3. 자유분방한 생활, 유흥과 쾌락을 위해(눅 15:30)

4. 타국에서의 삶: () 생활

- 4.1.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(눅 15:13-14)
- 4.2.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자 궁핍하게 됨
- 4.3. 돼지를 치며,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함
 - 4.3.1. 돼지를 치는 것은 일종의 배교행위
 - 4.3.2. 탈무드의 기록: "돼지를 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!"
 - 4.3.3. 탕자의 이중적 죄악: ()(제 5 계명)와 ()을 향한 죄(눅 15:18)

3. 탕자의 회개와 아버지의 환영

3.1. 탕자의 회개

3.1.1. "스스로 돌이켜"—인생의 바닥에서 찾게 된 아버지(눅 15:17)

3.1.2. 회개의 본질은 행위가 아니라, 아버지를 ()하는 것!

3.1.3. 회개의 결과는 아버지께로 돌아감(눅 15:20) → 무조건적인 순복/의뢰/의탁(눅 15:19)

3.2. 아버지의 환영

3.2.1. "아직도 상거가 먼데"(눅 15:20)

A. 날마다 동구밖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(잃은 양, 잃은 동전의 비유)

B. 용서는 아버지의 마음 속에 이미 이루어져 있음

C. 아버지를 만날 때 탕자는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, ()하는 것!

3.2.2. 큰 잔치를 벌임: 좋은 옷과 반지와 신발 → 아들의 지위에 대한 완전한 복권

4. 큰 아들의 원망

4.1. () 강조의 법칙: 이 비유의 핵심은 마지막 부분에 있음

4.2. 큰 아들의 불만

4.2.1. "내 동생"이 아니라, "[당신의] 이 아들"로 호칭(눅 15:30)

4.2.2. 그에게 대한 마땅한 처분은 책망, 회초리, 징계, 창피를 줌 → ()의 구현

4.2.3. 하지만 아버지는 "측은히 여김" → 긍휼히 여기는 마음(눅 15:20)

4.3. 큰 아들이 상징하는 인물(눅 15:2)

4.3.1. 세리와 죄인들을 환영하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

4.3.3. 이들을 책망하시기 위한 일련의 비유들

4.4. 존 맥아더: 이후 큰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함

5. 결론

5.1. 이미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(겨자씨와 누룩)

5.2. 우연히 발견되는 하나님의 나라(밭에 감추인 보화)

5.3. 그 나라를 향한 초대(잃은 양과 동전)

5.3.1. 잃어버린 자를 찾는 하나님의 마음

5.3.2. 주저 없이 달려가면 됨

5.4. 주께 나아오는 자를 환영하고, 함께 기뻐함(은혜로운 아버지)

5.5. 주께로 나오는 자를 찾아 나섬(불의한 청지기)